“한국불교 중심 새 국제단체 설립 필요”

교불련, 7월 5일~7일 부산서 교수불자대회 개최

한국불교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모색하며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불교 특색과 포교 방향 그리고 선결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심익섭 · 이하 교불련)는 7월 5일~7일 부산 삼광사와 송정 약사선원에서 ‘2016년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하고 ‘한국불교 세계화’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 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는 ‘조계종의 국제화 전략- 문제점과 방향’을 주제로 한 논문을 통해 조계종 국제화 전략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짚었다.

김 교수는 조계종 국제화 포교 전략의 문제점으로 국제포교 전담 기구 부족과 해외 포교 전문 연수기관 전무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발전방안으로는 △국제불교교육연수원 설립 △교구 본사별 해외특별교구 사찰 건립 △국제포교를 위한 외국어 전문 교육 △한국불교 중심의 새 국제불교 단체 설립 등을 제언했다.

김 교수는 “조계종의 국제업무 조직과 인력은 지구촌 시대를 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국제 교류와 국제포교 정책을 비롯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양성과 국제포교 전담 기구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불교교육연수원을 설립해 국제포교인력의 외국어와 해외포교 실무 등을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남방불교권 재가단체인 세계불교도우의회(WFB)에 조계종이 공식 가입해 활동하는 것은 종단 위상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새로운 국제불교 단체 설립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세계불교포럼’과 같은 대규모 국제불교행사를 통해 불교의 종주국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불교는 종단 대표의 수동적 참석 위주의 교류에 머문다”고 지적하고 “조계종이 중심이 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서 새로운 국제불교단체를 창설해야 한다. 이 단체를 중심으로 한국불교가 세계불교를 이끌어가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세계에 기여하는 한국불교를 위해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7월 5일~7일 부산 삼광사와 송정 약사선원에서 ‘2016년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하고 ‘한국불교 세계화’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용표 교수, 조계종 국제 전략 분석
“전담부서 적고, 연수기관 전무” 비판
국제단체 창립 · 외국인 포교 등 나서야

200여 불자 교수, 韓불교 세계화 논의
포교 · 문화 · 공동체 통한 전략 제시
30개 논문 발표… 역대 가장 많아 ‘눈길’

박 교수는 “한국불교를 돌아본 결과 가장 큰 특징은 원광대사의 세속 5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원광대사의 세속 오계는 유불(儒佛) 사상으로 출가와 세속이 함께한다는 사상이다. ‘정혜쌍수’라는 자기 수양을 바탕으로 세속오계를 융합하면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박 교수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으로 강조해야 할 부분은 ‘승가의 청정수행 전통’을 꼽았다. 박 교수는 “일본과 중국과 비교해 현재 한국은 청정 수행 법통이 살아있다”며 “‘생명친화적, 자연친화적, 청정 수행의 법통’을 지켜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불교는 세계와 소통하는 ‘세계 통(通)불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는 역사상 가장 많은 30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먼저 △한 · 중 · 일 특별회의 △한국불교종단의 국제화 특별회의를 통해 아시아 한 · 중 · 일의 세계화 사례를 풀어내고 조계종을 비롯해 천태종, 진각종, 태고종, 원불교 등 각 종단의 국제화 전략을 모색했다.

또한 △한국불교의 포교 활동 △한국불교문화의 세계화 △한국불교와 지역 공동체 등 분과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자유주제와 ‘아시아 불교’ 분과도 추가해 폭넓은 방향으로 진행했으며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불교미래포럼’ 및 ‘대학불교 네트워크’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대회에는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보리선수 약사선원 진푸티 상사, 신뇨엔 원주 이토 신소 대승정 및 심익섭 교불련 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대회 전 진행된 입재식에서 심익섭 회장은 “치열한 담론을 통해 한국 불교 세계화 전략을 위한 기본 선결 과제를 알고 세계 속의 한국불교로 거듭 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 하성미 기자

‘고려 수월관음도’ 등 성보, 보물 지정 잇달아

문화재청, 7월 4일 4건 지정 공고
산청 납석사리호 지정 명칭 변경

고려 수월관음보살도 등 불교 문화재가 잇달아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고려 수월관음보살도’ 등 4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고, 국보 제233호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의 지정명칭과 지정번호를 변경했다”고 7월 4일 밝혔다.

보물 제1903호 ‘고려 수월관음보살도(高麗 水月觀音菩薩圖)’는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입법계품의 내용 중, 선재동자가 보타락가산에 머물고 있는 관음보살을 찾아가 깨달음을 구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선재동자는 53명의 선지식을 두루 찾아다니며 진리를 터득했다는 인물로, 이 그림은 28번째 선지식인 관음보살과의 만남을 표현했다.

화면 가운데에는 이중의 둥근 광배를 갖추고 수정염주를 굴리며 보타락가산의 금강바위에 반가좌로 앉은 관음보살이 압도적인 크기로 묘사됐으며, 향 왼쪽 하단에는 무릎을 구부려 합장하며 보살도를 묻는 선재동자를 조그맣게 표현했다.

사선으로 배치된 두 주인 공간의 무한한 공간감, 고려 시대 수월관음보살도에서 자주 보이는 청죽(靑竹) · 바위 · 정병(淨甁) 등의 세련된 표현과 짜임새 있는 구성력은 고려 후기 수월관음도의 전형적인 특징을 유감없이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물 제 1903호로 지정된 고려 수월관음도

보물 제1904호 ‘김천 갈항사지 동 · 서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金泉 葛項寺址 東 · 西 三層石塔 出土 舍利莊嚴具)’는 1916년에 갈항사 터의 동 · 서 삼층석탑을 경복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동탑 기단부에는 758년(경덕왕 17)에 언적법사(言寂法師)와 조문황태후(照文皇太后) 등 그의 두 누이가 함께 발원하여 건립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이 사리장엄구도 탑을 건립할 당시에 봉안한 것으로 추정돼 통일신라 사리장엄구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보물 제1905호 ‘서울 청진동 출토 백자항아리’는 2009년 종로구 청진동 피맛골에서 일괄 출토된 순백자항아리 3점으로, 출토지가 명확한 조선 전기 백자라는 점이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보물 제1906호 ‘대명률(大明律)’은 조선 왕조의 법률, 특히 형률(刑律)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국보 제233호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는 사리호가 봉안됐던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보물에서 국보 제233-1호로 승격 지정됨에 따라 불상과 사리호와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하고자 지정명칭과 지정번호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사리호는 국보 제233-2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납석사리호’로 지정명칭과 지정번호를 변경됐다. 신성민 기자

경영자라면 ‘불교리더십’ 배우세요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리더십 최고위 과정 모집

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종호)는 ‘제24기 불교리더십 최고위(CEO) 과정’을 모집한다.

‘불교리더십 최고위 과정’은 동국대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고급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해 사회 리더들이 부처님의 수승한 가르침을 배우고 참다운 리더십을 정립하게 하는 불교대학원 특별 과정이다. 현 총무원장 자승 스님(9기)부터 이오규 두산인프라코어 대표이사(21기), 정부석 삼성전자 상무(18기) 등 적지 않은 불교계 오피니언 리더가 최고위 과정을 수료했다.

최고위 과정에는 사찰 예법부터 경전 개론, 요가, 명상, 간화사 등 수행 체험을 비롯해 불교와 인접학문들의 만남 등의 강의가 이뤄진다. 또한 명사 특강, 고승 초청 법회, 템플스테이, 해외성지순례 등도 진행된다.

최고위 과정은 오는 8월 12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며, 대상은 기업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사회 지도자급 인사다. (02)2260-3096 신성민 기자

문화재청,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공모

8월 31일까지 접수

문화재청(청장 나선과)이 문화유산의 보존 · 연구 · 활용 분야에 뛰어난 공적을 세운 개인과 단체를 발굴 · 포상하기 위해 ‘2016년도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다.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은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문화 분야 최고 영예인 △문화훈장(2005년~현재) △대통령표창(2014년~현재, 2004~2013년은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수여)으로 나누어 수여된다.

포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개인 · 단체 · 기관 등에서는 추천서와 정부포상 동의서 등을 문화재청 누리집에서 내려 받아 8월 31일까지 문화재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9월부터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공개검증을 거쳐 12월8일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042)481-4816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